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붉은 깃발 총기 보호 법안(RED FLAG GUN PROTECTION BILL)을 통과시키기 위한 버스 투어 캠페인 개시

주지사, 상식적인 총기 개혁 법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교직원들과의 연대를 위해 학교들을 방문하는 버스 투어 개시

롱아일랜드 리더들, 법원의 개입으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사 및 교직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제출한 법안 승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가 지난주에 제출한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 법안(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Bill)이라고도 알려진 붉은 깃발 총기 보호 [법안](#)(Red Flag Gun Protection Bill)을 통과시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 투어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지방 정부 선출직 공무원, 교직원, 학생들이 모여 있는 플레인뷰 소재 플레인뷰-올드 베스페이지 존 예프 케네디 고등학교(Plainview-Old Bethpage John F. Kennedy High School)에 들렸습니다. 또한 롱아일랜드의 리더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개인이 권총, 소총 또는 엽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총기류를 구입, 소지 또는 구입하거나 소지하려고 시도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의 총기 규제법과 이전의 입법 활동을 토대로 삼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은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들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무 혼란이 되어 버린 총기 폭력과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에 대한 조치를 워싱턴이 취할 때까지 뉴욕은 방관하면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매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교사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해서는 안됩니다. 서로 협력하여 우리는 이 상식적인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고 또한 통과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총기 폭력이 이 위대한 주에 설 자리가 없도록 계속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나 동급생이 타인에게 명백한 위협 또는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해당 인물이 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으로 우리는 교사와 교직원에게 끔찍한 비극에 대해 보고하고 가능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기 폭력은 우리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왔습니다. 뉴욕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위협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을 승인한 롱아일랜드 리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 Steve Bellone
- 나소 카운티 행정책임자 Laura Curran
- 서퍽 카운티 입법 의원 Monica Martinez
- 서퍽 카운티 입법 의원 Bill Lindsay
- 서퍽 카운티 입법 의원 DuWayne Gregory
- 나소 카운티 입법 의원 Arnie Drucker
- 햄스테드 타운 슈퍼바이저 Laura Gillen
- 플레인뷰-올드 베스페이지 존 에프 케네디 고등학교(Plainview-Old Bethpage John F. Kennedy High School) 교장 Lorna Lewis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극한의 위협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s)법 도입

기존 뉴욕주 법률에 따라, 형사 법원 또는 가정 법원이 한시적인 보호 명령을 내린 사람의 경우, 총기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또는 가정 내 범죄 소송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보호 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 또는 가정 내 범죄로 기소되지 않을 경우,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총기류를 한시적으로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현재 뉴욕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이나 자신에게 폭력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두려울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법 집행 기관에 자주 연락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러한 단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주는 미국에 없습니다.

이 법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테네시주 내슈빌의 와플 하우스(Waffle House)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없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상의 안전 장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총기 난사범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위험하지만 치명적인 총기류를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복수의 출처에서

보고했습니다.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은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했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원 조회 유예 기간(Background Check Waiting Period) 연장

Cuomo 주지사는 또한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NICS)을 통해 총기 구입을 즉시 승인받지 못한 개인의 유예 기간을 10 일로 정하는 법률을 이전에 [도입했습니다](#). 현재의 연방법은 총기 판매업자가 총기를 판매하기 전에 잠재적인 구매자에 대한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ICS)으로 신원 조회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즉시 세 가지 가능한 통보 결과 중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이 통보는 “진행”, “거부” 또는 “지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연” 응답인 경우,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이 3 일을 초과하여 이 개인을 계속 조사한다고 해도, 판매 업체는 판매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3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때로, 잠재적인 구매자가 사실상 부적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까지, 개인은 3 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총기 판매를 마쳤습니다. 유예 기간을 10 일로 연장할 경우, 신원 조회를 완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기 구매 및 소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총기를 사서 소유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Jo Anne Sim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징후가 보일 때, 교사, 교직원, 가족 구성원들은 종종 이러한 징후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더라도 법 집행 기관이 총기 폭력의 비극을 예방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Order of Protection)은 그들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동시에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보호와 항소권을 제공합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여 이 법안을 제출하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서퍽 카운티의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상식적인 총기 안전 조치를 제정하는 일에 있어 미국의 리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법안은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뉴욕에서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가결되도록 우리 지역의 리더들과 끊임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의 **Laura Curra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가능한 한 최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수업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우리의 교실을 지키기 위해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을 제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즉시 가결시킬 것을 우리 주의 리더들에게 촉구합니다.”

서퍽 카운티 입법부의 **DuWayne Gregor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무의미한 총기 폭력 사건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워싱턴과 우리 나라의 리더들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고맙게도 뉴욕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지사님은 총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뉴욕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계속 제출해 왔습니다. 저는 총기 폭력과 대량 난사 사건에 맞서는 **Cuomo** 주지사님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퍽 카운티 의회의 **Monica Martinez**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연방 정부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등을 돌렸을 때 조치를 취하고 계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전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의 의견인 총기 안전 개혁안에 대해 뉴욕 주민은 목소리를 높여왔고 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을 지지함으로써, **Cuomo** 주지사님은 뉴욕 시민을 보호하고, 학교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안전하고 포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확실히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퍽 카운티 의회의 **Bill Lindsay**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최우선 사항은 가장 취약한 주민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극한의 위험 방지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과 같은 총기 안전 조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교육청의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한 점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의 **Drucker**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학교에서 총기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방탄 기능을 갖춘 배낭 책가방을 제공하거나 교사들을 총기로 무장시키는 대신에,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이 폭력의 원인을 근절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총기 개혁안과 관련하여 이 나라의 리더로서 워싱턴이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싸우시는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의심할 여지없이 뉴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나라의 다른 지역들도 이 길을 따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헨스데드 타운의 **Laura Gillen**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타운의 부모이자 리더로서, 저는 총기 폭력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매주 학교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나라에서 흔한 일이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연대하여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총기 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이 끔찍한 재앙을 해결하려는 주지사님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플레인뷰-올드 베스페이지 존 에프 케네디 고등학교(Plainview-Old Bethpage)의 **Lorna Lewis**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학교에 피해를 입힌 총기 폭력의 재앙을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다행히도 뉴욕에는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학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영향력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주지사님이 계십니다.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은 인명을 구하면서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적절한 조치를 구현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초당파적인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고통을 받기 전에 주지사님이 제출하신 이 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